

#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4월 첫 번째 28권 6호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주한미군 주임원사인터뷰

###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 4,5면 부대 탐방

728헌병대대 188헌병중대



### 6면 자유 공간

자가초청 소감문

###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 8면 안녕하세요

박진희



###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RSO&I / Foal Eagle 2003



카투사 신문 장승모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8군본사 부대원들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Foal Eagle' 훈련과 연계하여 'RSO&I(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미연합사령부는 그 동안 각각 실시하던 'RSO&I' 훈련과 'Foal Eagle'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RSO&I' 훈련은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의 시차별 부대 전개에 따른 각 절차 등을 숙달하기 위해 컴퓨터로 실시하는 지휘소 훈련이다. 또한 'Foal Eagle' 훈련은 적의 게릴라가 후방에 침투할 때 주요

대시켜왔다. 올해의 'RSO&I/Foal Eagle' 훈련은 한국군 뿐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된 거의 모든 미군 부대와 해외로부터 증원되는 소수 미군 병력도 참가하였다. 이번 훈련에서 군 지휘관들은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War-game 을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훈련 참가자들은 그들이 소속된 부대가 실제 전쟁 상황에서 맡게 될 임무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각자의 전쟁 수행 능력을 증대시켰다.

시설과 부대를 방호하는 후방 지역 방호훈련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매년 3월 말 'RSO&I'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로 전쟁이 한반도에 발발했을 시를 대비해 군의 대처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한미 양국의 긴밀한 군사 협조를 확인, 증

8군본사 소속의 Jerrod E. Hark 대위는 다음과 같이 이번 훈련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RSO&I' 훈련의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RSO&I' 훈련은 총 4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로 수송된 증원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수용하는 과정, 두 번째로 증원된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지휘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대로 결합시키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병력, 장비, 물자를 집결 및 편성하여 이동 준비를 하는 과정, 세 번째로 대기지역으로부터 전술집결지로 병력 및 장비를 이동 및 재배치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 준비가 완료된 증원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전술 지휘관에게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훈련 참가자들은 전시 상황에서 각자의 임무를 완벽히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8군본사 공병참모부 소속의 송영균 일병은 "이번 훈련을 통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부대원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훈련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일병 장승모

## 국방부 군복무 기간 단축 확정

국방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방침에 따라 올 10월 입영하는 현역병의 경우 육군, 해병은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또 군 특성을 감안한 다면평가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병사들의 봉급도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평균 8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10월 전역 예정자인 2001년 8월 이후 입영자들도 복무기간이 1주 단위로 점진적 단축돼 조기 전역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01년 8월 이후 입영, 올 10월 이후 전역 예정인 현역병들에게는 병역단축을 본격 시행하기 전의 경과기간 중 군 복무자에 해당돼 2~3개월 단위로 짧아 1주 단위로 점진적으로 단축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1년 8~9월 입영자는 1주, 10~12월 입영자는 2주, 2002년 1~3월 입영자는 3주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식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의 병역의무를 경감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 전투력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 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 기준으로 볼 때 1993년 방위병제 폐지로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4개월 단축한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인력집중형인 군 구조를 디지털 정보 과학 기술군으로 전환하면 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대학생 입영자의 경우 4학기만 휴학한 뒤 곧바로 복학할 수 있어 사회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방부는 현행 병력수준을 유지할 경우 복무기간 1개월을 단축하면 연간 1만1000명의 병력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2개월 단축시 연간 2만2000여 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8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감소, 2005년부터는 현역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인원을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68년 1.21 사태 후 육, 해병은 6개월 연장해 36개월로, 해군과 공군의 경우 3개월 연장해 39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을 늘린 바 있다. 역사적으로 최장 복무기간은 육, 해병의 경우 53, 68년의 36개월이고, 해, 공군의 경우 68년의 39개월이었다. 최단 복무기간은 육, 해병의 경우 93년 이후 26개월이었으나 올 10월부터 24개월이 된다. 해군은 94년부터 28개월이었고, 공군은 93년 이후 30개월이었으나 10월부터 각각 26, 28개월이 된다. 또 전쟁 직후인 53년 당시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0년만에 1년이 단축된 셈이다.

국방일보 제공

# 주한미군 주임원사 인터뷰

##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며

카투사 신문은 지난 3월 17일 주한미군 주임원사로 있는 Benjamin C. Palacios 원사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Palacios 주임원사는 약 3년 동안 한국에서 연합사/주한미군/미8군 주임원사 직책을 맡았고 이번 달을 끝으로 5월 2일 미국으로 떠난다. Palacios 주임원사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카투사들을 만났고 카투사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Q) 카투사들이 그들이 소속된 부대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까?

A) 카투사 프로그램의 역사는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투사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계기는 1950년도에 미군의 맥아더 장군이 그 당시의 한국 대통령에게 미군과 함께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한국군 지원을 요청한데서 비롯합니다. 이제 카투사 프로그램은 올해로써 5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과 카투사들간에는 깊고 튼튼한 결속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부대 내에서의 카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대 내의 병원을 가던, 화학 부대를 가던, 혹은 전투 부대를 가던, 카투사들은 어디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재 5,000여명의 카투사들이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고 그들이 부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Q) 만약 주임원사께서 카투사라면, 카투사로서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이 들거나 느끼게 되는 장벽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A) 분명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도 언어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카투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KTA에서 카투사 트레이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자대 배치를 받는 카투사들은 생소한 환경과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카투사들에 의하면 영어는 군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장벽이라기보다 도전해야 하는 상대라고 합니다. 영어 외에 다른 어려운 점은 아마도 주특기 교육일 것입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주특기를 받게 되면 그 주특기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미군이 71L이라는 주특기를 받게 되면 이 미군은 포트 잭슨으로 보내져 행정병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의무병의 경우에는 포트 세인트 휴스턴에 가 의무병 주특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카투사들은 이러한 주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선임병들의 도움 등을 통해 주특기를 숙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

니다. 일단 보직을 받은 후 자대에 가서 주특기를 배우는 식이지요. 하지만 카투사들은 정말 그들의 주특기를 빠른 시간에 습득합니다. 카투사 개개인이 모두 똑똑하고 훌륭한 덕분입니다. 카투사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군기도 잡혀 있고 항상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군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카투사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카투사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미군과 카투사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카투사뿐만 아니라 미군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막사에서 미군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는 걸 예로 들면, 카투사들은 이러한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미군들은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다 온 것입니다. 카투사들이 미군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미군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텐데 문화의 차이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Q) 한국에서 3년간 지내면서 기억에 남는 카투사가 있으십니까?

A) 정말 많은 카투사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카투사들이 주한미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어느 미군 부대를 가더라도 꼭 카투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대의 막사를 들리게 되는 경우, 카투사 선임병장을 만나거나 여러 카투사들을 만나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등을 묻기도 합니다. 딱히 기억에 남는 카투사를 꼽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지난 번에 미2보병사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대의 군 지휘관이 제게 하는 말이 이 부대에 훌륭한 부대원이 있으니 이 병사에게 코인을 수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병사가 카투사였습니다. 사기 충천하고 항상 준비된 병사였다고 기억합니다. 이 카투사 외에도 8군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흥병장이나 18 의무부대에서 근무

하고 있는 최상병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카투사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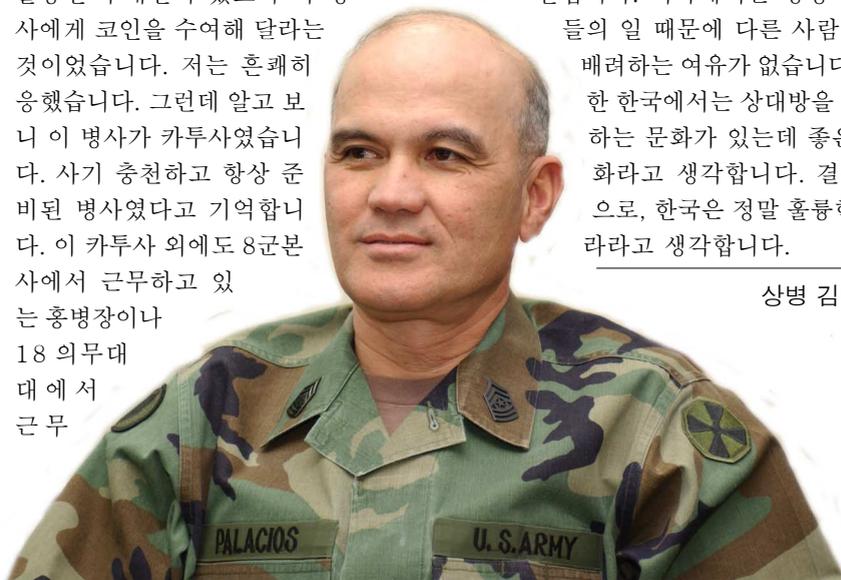
A) 카투사 복무 신조에 카투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둘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한미연합 전투력을 증강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호 우호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이 세 가지 복무 신조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보람된 군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한국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번 7월이 꼭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는 달입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한반도를 둘러볼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한국의 풍경은 정말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내려다 본 산들과 나무, 바다 그리고 도시들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또 생동감 넘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활기차게 돌아가는 기업활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게 자본주의가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을 가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감히 말하자면,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국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친근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듯합니다. 길거리를 가는 사람들조차 보면 진실 되고 착해 보입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을 지나칠 때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한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자신들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는데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

상병 김대동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판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쇄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서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펠  
 한국군지위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위단 정훈과장  
 대위(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대동  
 기자  
 병장 이만석  
 상병 강병삼  
 일병 장승모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Command Information OIC  
 MAJ Lee M. Packnett  
 Editor  
 CPL Kim, Dae Dong  
 Staff Writers  
 SGT Lee, Man Suk  
 CPL Kang, Byung Sam  
 PFC Jang, Seung Mo  
 Special Assistant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j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벨기에의 특수부대

◆ Specialised Reconnaissance Teams (ESR)

ESR은 적의 후방에서 적정을 탐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각 요원들은 벨기에내에서 '그림자의



산 속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벨기에 요원들

전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벨기에 정부는 이 부대의 존재를 수차례에 걸쳐 부인해 왔다.

가장 기억할 만한 작전으로는 12명의 요원이 자이레의 킨샤샤에 있는 벨기에 대사관 폭동을 진압한 일일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라예보, 소말리아 및 르완다 등지에서도 활약이 매우 컸다.

사라예보에서의 임무는 벨기에의 Briquemont 장군을 보호하는 임무였으며 28명의 요원이 활약했던 소말리아에서는 저항군을 감시하고 저항군의 수장이었던 Muhammad Said Hersi 장군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Silver Back' 작전에 투입되어 유럽인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도 했다.

이 ESR은 1994년 6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몇 명의 요원들은 벨기에의 공수부대에 남아 미래의 부대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의 특수부대

◆ PARA COMMANDOS

1965년 인도와 파키스

탄간의 전쟁중 창설된 코만도 부대는 다양한 보병부대들로부터의 자원자들로 구성됐으며 메흐 싱 중령이 지휘를 맡았다.

부대의 별칭은 '메두'였으며 전투에 참가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1966년 6월 인도 정부는 낙하산 연대의 창설을 인가하여 인도 정규 코만도 부대가 탄생하게 됐다.

메흐 싱 중령이 지휘하는 9 대대로 알려진 부대는 이전의 '메두' 부대원을 근간으로 구성됐다. 1967년 6월 9 대대 요원들중 일부와 다른 지원자들로 팔리에에 주둔하는 2번째 코만도 부대인 10 대대를 편성했다.

1967년 7월 이들 2 부대중 9 대대는 북부 산악지대에서 작전에 돌입했으며 10 대대는 서부 사막지역에서의 작전에 투입됐다. 1969년 이들 부대는 9, 10 코만도 부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패러 코만도(Para Commando)는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그들의 용맹성을 과시할 수 있었다. 9 패러 코만도는 맨돌지역의 파키스탄 포 진지를 점령했으며 이 전투에서 파키스탄 육군 172 포대의 122 mm 포 6 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포의 파괴와 함께 다량의 포탄과 장비들도 파괴했으며 파키스탄 병사 37 명을 사살하고 41 명을 부상시키는 전과를 올렸으나 패러 코만도의 희생은 극히 미미했다.

이들의 전과는 파키스탄 점령지였던 다루시안에서 진행중이던 인도 25 보병



인도 특수 부대 Para Commandos 마크

사단의 작전을 수월하게 했다. 전투에 참가했던 9 코만도 부대는 전장의 영웅이 됐다.

한편 10 패러 코만도 부대는 차크로와 비라와의 파키스탄 진지를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1970년대 후반까지 인도의 낙하산병들은 HALO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했으며 동시에 제 1 낙하산 부대가 육군의 3 번째 패러 코만도 부대로 재편됐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 헌 병 이 라 서      좋 은      점



188헌병중대 1소대 상병 진상혁

헌병은 부대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미군과 짝을 이뤄 순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 입대 전에 비해 유창한 영어를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또 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이클 때는 전투훈련을 합니다. 헌병의 전술 차량인 험비로 이동하여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 같이 땀을 흘립니다.



188헌병중대 2소대 상병 강길원

일단 근무헌병으로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민간인, 군인과 많은 접촉을 하고 다양한 장비와 각종 무기를 만져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군에 둘러 싸여 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고달픈 일도,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체력,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장 많은 갈등을 겪는 보직이 근무헌병이 아닌가 싶지만 그 속에서 그만큼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88헌병중대 선임병장 병장 이진석

먼저 다른 어떠한 보직보다도 미군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미국 젊은이들의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고 아울러 영어 습득의 기회도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 지겨워질 수 있는 군대생활 동안 타 지역으로 지원근무를 가고 각종 실제 호송 임무도 수행하는 등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서 비교적 군생활이 빨리 간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헌병생활은 힘든 만큼 얻는 것도 많습니다.



188헌병중대 2소대 병장 김기철

9.11 이전에 헌병 부대에 오신 카투사분들은 지금의 헌병 근무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전엔 주로 패트롤과 야전훈련이 전부였지만 현재는 많은 미션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는데 카투사 간의 전우애로 푹푹 뭉쳐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188헌병중대는 세 곳의 캠프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만 최상의 전투력을 갖춘 부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제공사진

해체되었다가 재창설하였으며 1961년에는 프랑스에 주둔하였고, 1976년에는 한국에 다시 파견되었다. 1954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력도 있다. 현재 50여명의 카투사와 140여명의 미군이 중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

한 일이라 예전에는 미군 부사관만 맡는 직책이었지만 2월 중순부터 728헌병대장이 카투사의 능력을 인정하며 방침을 내려 예하 중대에서 현재 시행중이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라고 한다. 헌병들은 이러한 대테러 시설보호, 치안 업무 이외에도 야전 훈련 또한 실시하고 있다. 1년에 크고 작은 훈련이 9회 정도 있다. 훈련으로 기지를 비우면 다른 곳의 헌병부대에서 파견근무를 나와 지원해준다. 188헌병중대원들도 가끔 용산, 부산, 왜관 등지로 파견근무를 나간다고 한다.

훈련은 사격훈련(Gunnery), EXEVAL, 호송훈련(Convoy Live Fire Exercise) 등인데 사격훈련의 경우 M249과 험비 위에 장착하는 40mm 유탄발사기인 MK19의 사격을 연습하는 것이다. 헌병중대의 경우 유사시 3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팀 리더, 운전수, 사수 3명이 험비와 MK19, M249 등의 장비를 갖춰 굉장한 위력을 보인다고 한다. 팀 리더의 경우 E-4, E-5 이상이지만 가능한데 카투사들도 상병 이상은 훈련시 대부분 팀리더가 되는 추세라고 한다. 188헌병중대 선임병장이진석 병장은 "상병 이상은 훈련시 책임이 막중하다"며 "팀리더에 작전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EXEVAL 같은 경우 분대 단위로 작전을 4-5개 수행하며 호송훈련의 경우 포로, VIP 등을 호송하다가 적의 출현에 바로 대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훈련에는 실탄이 사용되는 터라 훈련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한다.

이진석 병장은 "중대의 가장 특징적인 점을 꼽자면 어떤 부대보다 미군과 카투사의 사이가 좋다는 점"이라면서 그 이유로 미군과 카투사가 근무시, 훈련시 같이 다니고 중대장 방침상 카투사와 미군이 방을 같이 쓰게 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카투사끼리도 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끈끈한 정이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188헌병중대는 근무시 3교대로 일하는 중대의 특성상 적은 인원들만 모여서 PT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T 컷라인은 각 파트당 70점이며 이에 미달인 경우 추가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카투사들 중 특별관리 대상자는 없으며 평균 점수는 250-260정도, PT 마스터도 10명 가량 있다고 한다.

이진석 병장은 188헌병중대의 생활에 대해 업무량이 많고 쉬는 날이라도 부대 앞 집회 등이 있으면 당장 근무하러 나가야 하는 등 가끔 고충이 있지만 힘든 만큼 병장이 되는 동안 얻는 것이 많고 "어렵게 얻는 것은 더 많은 가치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였다. 그는 "예를 들면 애초엔 헌병중대에 오는 인원들의 영어 실력은 비교적 좋은 편이 아니지

연합전시지원훈련을 위해 대구에 머물다가 캠프 워커의 728헌병대대 188헌병중대를 방문하였다. 중대 데이룸에서 선임병장과 취재에 대해 상의하던 도중 TV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의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48시간 최후통첩이 생방송으로 흘러나왔고 현재는 모두가 아는 대로 이라크전이 한창이다. 준전이라고 할 만큼 모든 카투사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점이지만, 특히 헌병들은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감한 보직이다. 경계 수위에 따라 업무의 양이 예측 불허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188헌병중대의 역사를 보면 1942년 미시간에서 창설되었으며 1950년에는 6.25전쟁에 참전했고 1953년에는 카투사 헌병이 최초로 배속되었다. 1955년에는

부분이 헌병이지만 행정병, 보급병, 화학병 등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188헌병중대의 임무는 주둔지, 즉 캠프의 시설과 인원, 물자를 보호하고 주요 보급로를 경찰, 유지하는 것이다. 전시에는 전투를 포함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헌병의 주 업무 중 하나인 순찰 업무의 경우 보통 7명, 차 4대가 한 조를 이루며, E-5 이상인 근무 감독(supervisor)이 책임을 진다. 중대는 대구에 있는 헨리, 워커, 조지 3개의 캠프를 관리하고 있다.

감독자는 의사 소통이 중요하고 예민

# 188th MP Company

없으며 소대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2소대 김성철 병장은 "막상 해보니가 신경 쓸 것이 많고 자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감독해야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카투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 좋고 미군 병장과 완전히 동등해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순찰시엔 미군, 카투사 모두 헌병 부대의 특성상 군화와 군복의 모양새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한다.

순찰 업무외에 출입 통제 근무도 있다. 출입문을 오가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증을 검사하고 혹시나 있을 무단진입에 대비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출입문에 투입되는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

만 제대할 때쯤에 회화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으며 "훈련 역시 힘들지만 분대끼리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2소대 강길원 상병은 "188헌병중대는 업무량이 많아 어렵기도 하지만 캠프 위커는 그 어떤 곳보다 부대시설이 좋고 근무하다 보면, 특히 부대 밖 순찰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3소대의 노은호 일병은 대구에서 헌병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집에서 떨어져 볼 수 있는 기회이고 2년여 동안 남들이 하기 힘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소대의 김기철 병장은 군생활 중 인상에 남는 일로 권투대회에 참가한 것을 꼽았는데 유일하게 카투사로서 권투대회에 나가니 애국가가 나올때 더욱 자부심이 컸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되었고 군생활에서 뭔가 하나 남는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뜻깊었다"고 말했다.

188헌병중대는 작년 한국군 지원단본부에서 실시한 전투력평가에서 우수부대표창을 받기도 했는데, 중대의 카투사들에 의하면 188헌병중대 지원대장 김영신 상사는 부임 이후 교통사고 예방,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총기/탄약관리, 환자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카투사들이 미군들이랑 똑같이 일하는 만큼 똑같이 대우받도록 하고 자부심에 상처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준다고 한다. 그는 "근무하면서 한국군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제대하기까지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생활하라"는 바램을 전했다.

188헌병중대 Douglas S. Koser 주임상사는 "최고의 병사, 가장 똑똑한 병사가 아닐지라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고 말하며 "

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카투사들의 동기부여가 미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188헌병중대장 Brian J. Carlson 대위는 중대의 카투사들이 믿을 수 있고 의욕적이며,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부대에서 2년간 일하는 카투사들의 경험 역시 중대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큰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헌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과 의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 또한 갖춰야 합니다. 업무의

투사들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비상 등으로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헌병들은 언제나 다시 군복으로 갈아입고 뛰쳐나와야 한다. 불평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들은 오늘도 의욕적으로 근무에 임한다고 말한다. 전국의 카투사들은 수많은 캠프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받고 근무하지만 이것 한 가지-맡은 일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임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만은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다. 젊은 카투사의 패기로 어떤 일이든 정면으로 맞서서 멋진 군생활, 추억에 남는 군생활 만드시길 기원한다.

상병 강병삼

# IN PEACE AS IN WAR

## 특성상

헌병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등 공격적이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많은 수의 카투사들은 너무 친절한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법을 어기거나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독단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대의 카투사들은 이제까지 본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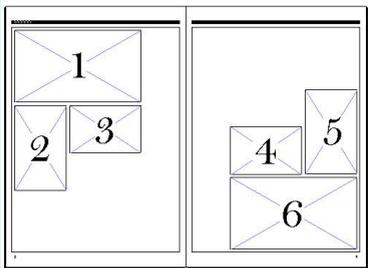
중대의 선임 카투사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일하는 데 있어 의욕적"이며 "그들은 후임 카투사들을 잘 가르쳐 그들처럼 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투사들이 한국에서 헌병중대가 근무하는 데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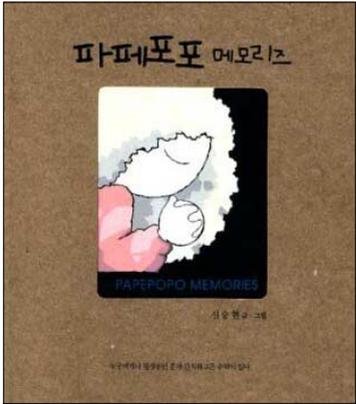
카투사 신문 강병삼



1. 순찰 감독을 맡아 근무 상황을 보고 중인 2소대 김성철 병장과 운전 중인 Rickey A. Jones 일병.
2. 출입 통제업무중인 4소대 조상욱 일병이 통행 차량의 출입증을 검사하고 있다.
3. 사격훈련 중 MK-19를 장착한 험비의 사수 자리에 앉은 1소대 정재훈 일병(가운데).
4. 사격훈련에서 MK-19를 쓰고 있는 이진석 병장(왼쪽)과 김추희 일병.
5. 근무 전 4소대의 정수민 상병이 Gerald Peacock 하사의 감독 하에 M-9 권총을 클리어하고 있다.
6. 2소대의 박진수 병장(오른쪽)이 순찰 근무 전 팀원들을 모아놓고 근무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숙지시키는 Guard Mount 를 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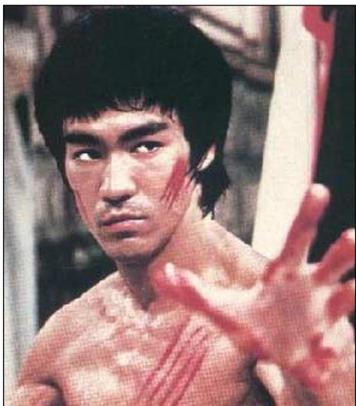


BESTSELLER

파페포포 메모리즈

심승현 / 홍익출판사

사랑과 추억, 시간과 관계, 의미에 관한 만화 에세이. 순수한 청년 파페와 착하고 어린 소녀 포포의 예쁜 사랑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가치,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 우정의 의미 등을 아기자기한 그림 속에 담아냈다. 에세이적 감성과 철학적 사유의 글, 개성 넘치는 인물 설정과 깔끔한 그림체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살며시 치료해준다. 마음을 맑게 해주는 동화같은 책!



WEBSITE

액션 스텐트 영화만들기

kamunion.wo.to

위험한 장면에만 전문으로 출현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단역배우를 스텐트맨이라 한다. 영화를 보다보면, 더욱이 요즘같이 제작비를 많이 들이는 초대형 액션 영화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이 소개된다. 이소룡과 같은 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받는지 모두들 한번쯤은 궁금해했을 것이다. 이러한 스텐트의 구성 및 스텐트 기획과정을 소개하는 사이트.

■ 카투사 기고문

자가초청 소감문

이현규 일병의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는 이번 호에 쉽니다. 그간 보내주신 기고문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지난 설날에는 민족의 명절을 맞아 카투사와 미군간의 우호관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여러 부대에서 자가초청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미군들이 차례와 세배 등 우리의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이들을 자가로 초청한 카투사들 역시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설날은 카투사들뿐만 아니라 그리운 가족을 고향에 두고 낯설고 먼 곳으로 온 미군들에게 있어서도 따뜻한 명절이 되었다. 아래의 기고문들은 미군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한 카투사들과 또 카투사 친구의 집을 방문한 미군의 소감문이다.

지난 2월 2일,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Bass 병장과 Whipple 병장을 자가로 초청하였다.

11시 즈음 집에 도착하여서 어머니와 형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우선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그들은 한국의 온돌방에 대해서 'wonderful', 'great' 등의 표현을 쓰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가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한국의 건강을 생각하는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더니 항상 기뻐하고 느끼한 서양식 음식보다 더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빈대떡과 불고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처음 먹어보는 잡채와 청포묵은 생소했지만 맛있게 잘 먹었다.

식사 후 가족 앨범을 보여주며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다. 미군들은 가족을 남기고 먼 땅에 와서 그런지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매우 절실하게 또, 재미있게 해주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전통 풍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세배하는 것을 소개시키고 세뱃돈도 받으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다.

미군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의 문화를 점점 알아갈 때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칭찬하는 그들을 보면서 세계 어느 문화에도 뒤지지 않는 문화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나의 설명을 듣고 감탄하는 그들을 보면서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앞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미군들을 초청하거나 구경시켜주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5수송대대 305병참중대 일병 조정호



제공사진

조정호 일병의 어머니께 세배를 올리는 Sgt. Bass(위)와 Sgt. Whipple(아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부대의 소중한 외국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2명을 초대했는데 한 명은 나의 룸메이트인 Miller 라는 친구고, 또 한 친구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막 적응하고 있던 '레이'라는 친구이다. 한국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여 두 명 모두 한국 문화를 너무나 알고 싶어해서 이번 기회에 자가로 초청하게 되었다.

미군 친구들이 자가로 들어가는 순간 놀라움과 생소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위에 슬며시 피어오르는 향, 촛불, 그리고 가지각색으로 정리 정돈하게 뿔뿔이 놓인 음식들을 보며 입이 짝 벌어지면서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차례상 위에 놓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이лай트는 바로 세배였다. 설날의 가장 중요한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 세배를 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생소한 미군 친구들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세배가 가지는 의미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세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또 다같이 동참하였다.

미군 친구들은 다시 부대로 돌아갈 때가 되자 우리 나라의 웃어른에 대한 존경, 정, 공손함, 친절, 전통 문화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국, 한국문화를 더 알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한편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관심과 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로 더 크게 뻗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18의무사 168대대 5예방 일병 변성훈

카투사 친구의 친절은 미국에 있는 집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히 해주었다. 조 일병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 못지 않게 나에게 정성과 관심을 가져 주었다.

이번 자가 초청을 통해서 가장 놀라웠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문화의 차이였다. 우리와의 문화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생소했지만 조정호 일병과 조 일병 부모님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또 그 우수성을 알게 되었다.

팽이치기와 세배, 널뛰기 등 여러 풍습과 놀이, 음식을 보고 체험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고 더욱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카투사 친구의 가족 앨범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나의 가족들의 얼굴들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나도 정겹고 즐거운 한때를 보낸 사진들을 보니 순간 나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졌다. 가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웠던 순간들, 에피소드를 나누어 가졌다.

내가 카투사 친구의 집을 나서기까지 그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친절과 정성을 표했다. 조정호 일병과 함께 보낸 하루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꼭 조정호 일병과 조정호 일병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오늘의 고마움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대로 돌아왔다.

25수송대대 305병참중대 Sgt. Bass

Winglish.Com °ú ÇÔ²²ÇĬ'Â  
**English Talk N' Talk**

**제 11 장**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예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대화를 연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임대는 우리나라처럼 '전세'의 개념이 아닌 '월세'라는 겁니다. 보통 6개월 또는 1년 계약이죠.

Topic: "아파트 임대료 얼마예요?"

How much is rent for an apartment?

주제연구 : 단어 lease 와 rent 가 자주 혼돈 됩니다. 그리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Lease 는 '장기적인 임대'의 개념 '이고 rent 는 그보다 '짧은 기간'의 개념 '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파트'는 rent 를 하고 '건물' 등은 lease 를 하죠.

A: How much is rent for an apartment?

B: It depends on how many rooms there are and location.

A: Let say, a two bedroom apartment near Johnson street.

B: It'll cost you \$250 and up.

번역)

A: 아파트 임대료는 얼마예요?

B: 방 개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죠.

A: 예를 들어, 존슨 가 근처의 방 두개 짜리 정도요.

B: 그 정도면 월 \$250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덧붙여)

let say 를 연구합니다. 이 말은 for example 정도로 번역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250 and up 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250달러 이상' 또는 '최소한 250달러 정도'로 번역하세요.

가스비와 전기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집을 임대하게 되면 집 주인은 사용한 '전기, 물, 가스비' 등의 청구에 대해 규정을 말해 줍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Topic: "가스비와 전기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You pay for gas and electricity.

주제연구) : 집 이나 아파트를 임대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비싼 곳은 일반적으로 '수도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 및 가스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A: I like this apartment. How much is the rent?

B: \$300. And you pay for gas and electricity.

A: What about water?

B: It's included.

번역)

A: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듭니다. 월 임대료 얼마인가요?

B: 300 달러입니다. 그리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직접 부담해서 야합니다

A: '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B: 월세에 포함되어 있지요.

덧붙여)

일반적으로 Utility charges 라고 하면 전기(electricity), 가스(gas), 상하수도(water supply and drainage)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이사 간 새 아파트 어때요?

오늘은 이사 간 친구에게 "이사 간 집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미국인들이 말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약 3층 정도의 연립 주택식'입니다. 왜 미국에선 고층 아파트를 잘 안 지을까요? (혹시 우리보다 건축기술이 뒤져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 위로 올릴 수 밖에 없고 미국이야 워낙 땅이 넓으니 고층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그리 많지 않겠죠? 제 말은 여러분이 땅 좁은 '홍콩'에 가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Topic: "이사 간 새 아파트 어때요?"

How's your new apartment?

주제연구) : 이 표현을 우리말로 "이사 간 아파트 마음에 들어?" 라고 해도 자연스럽지요.

A: How's your new apartment?

B: I like it and it's very close to a bus stop.

A: Is it close to stores, too?

B: Not really, but it's close to my son's school.

번역)

A: 이사 간 아파트 마음에 들어요?

B: 쪽 들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A: 근처에 가게도 있어요?

B: 가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 학교가 집 근처예요.

덧붙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location 이 좋은 곳의 아파트 임대료가 그렇지 않은 곳 보다 높죠.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가까운가' 또는 '아이들 학교가 근처에 있나' 등은 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ully furnished 원룸아파트 있어요?

미국에서 집을 얻을 때는 보통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unfurnished apartment(우리식으로 말해서 빈집)이고 또 하나는 fully furnished apartment(가구 및 주방 설비가 완비된 집)입니다. 물론 임대료는 fully furnished apartment가 훨씬 비싸지요.

Topic: "fully furnished 원룸 아파트 있어요?"

Do you have a fully-furnished studio apartment?

주제연구)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원룸아파트'라는 표현은 우리식 영어입니다. 이럴 땐 studio type apartment 라고 하지요.

A: I'm looking for a fully-furnished studio apartment.

B: We have a semi-furnished one.

A: Ummmm, how much is the rent?

B: \$200 including utilities.

번역)

A: fully-furnished 원룸을 구합니다.

B: semi-furnished 가 있는데요.

A: 음... 임대료는 얼마인데요?

B: 월 200달러이고 '수도' '전기' '가스'는 무료입니다.

덧붙여)

semi-furnished 라는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fully furnished 와 unfurnished 의 중간쯤입니다. 보통, 침대등 간단한 가구를 설치하고 semi-furnished 라고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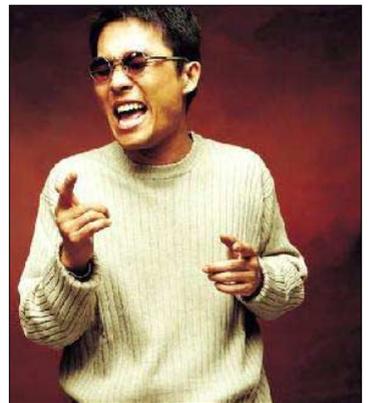
MOVIE

러브 인 맨하탄

감독: 웨인 왕

주연: 제니퍼 로페즈

마리사(제니퍼 로페즈)는 뉴욕 맨해튼의 일류 호텔에서 일하는 여급이다. 어느 날 스위트룸을 청소하던 중 여자 고객의 옷을 입어보다가 이 호텔에 투숙하던 인기 정치인 크리스 마샬(램프 파인즈)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크리스는 마리사를 호텔의 고객으로 오해해 데이트를 신청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마리사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TOP CHARTS

김건모

청첩장

2. 그랬나봐 / 김형중
3. 난 알아요 / 서태지
4. 남자가 때문에 / 드렁큰 타이거
5. Good Bye / 이수영
6. DJ / 박지윤
7. Break Away / 빅 마마
8. 고백 / 델리 스파이스
9. 동네 한바퀴 / CB Mass
10. 사랑하면 할수록 / 한성민
11. Cowboy / CLICK-B
12. Hit Song / N.R.G
13. For You / 브라운 아이즈

이번 호 '안녕하세요'의 주인공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이미 우리에게 그 얼굴이 친숙한 연기자 박진희이다. 본 기자는 청담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5월 초에 개봉할 박진희, 유오성 주연의 영화 '별' 촬영을 막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박진희 씨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추운 겨울 내내 소백산에서 영화 촬영을 하느라 심신이 몹시 피로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진희 씨는 그러한 내색 없이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었다. 본 기자는 인터뷰 도중 영화 '별'을 소개하는 그녀의 말과 표정에서 영화에 대한 그녀의 강한 자신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영화 '별'이 올 봄 영화계의 '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학교는, 이번 해에 동덕여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로 데뷔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오빠 친구 분이 제게 오디션을 한번 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는데 제가 오디션을 붙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분이 제가 그때 하던 아르바이트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붙었고 우연찮게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지요.

-최근 근황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번에 촬영을 마친 영화 '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머니와 팝으로 여행도 갔다 왔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와는 달리 영화를 촬영할 때는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더 많이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는 점에서 영화의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찍은 영화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영화가 있다면?

모든 영화가 다 애착이 가지만 영화 '간첩 리철진'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촬영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욕심이 커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의도대로, 제 욕심만큼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

밤낮이 바뀌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은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분야였고 또한 배우는 게 많아서 요즘 진행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해보고 싶다는 제 소망이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군인 청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사연은?

군인 청취자들이 정말 많아요. 군인 청취자 분들이 주로 보내시는 사연은 보통 전역 축하 사연이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연들이예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가슴아파하는 선임병들이나 후임병들을 위로하는 사연들도 많이 오고요. 또, 군대에 남자친구를 보내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는 여성분들의 사연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을 '고무신'이라고 하지요. (웃음)



카투사 신문 장승모

-이상형

저는 마른 체구보다는 통통한 체구가 좋고요, 체격이 큰 분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배려가 많은 분이었던 좋겠어요.

-카투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카투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어요. 하도 주위에서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제가 군대를 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카투사' 하면 '갈끔', '스마트'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열심히 군 생활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분들이 혹시나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을까'하며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 정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면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고, 또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편단심으로 군인 여러

# 봄바람을 타고 내려온 별 박진희

영화 '별'의 장르는 휴먼 멜로예요. 물론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랑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인간 자체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영화가 휴먼 멜로이기는 하지만, 진한 멜로를 기대하고 영화를 보러 오신다면 실망하실 지도 몰라요. 하지만 따뜻한 인간애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받고 가실 것 같아요.

-영화 '별'에서 맡은 '수연'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수연'은 수의사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유오성 씨가 연기하시는 '영우'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새침한 캐릭터인데, 항상 자신에 차있고 예쁜 마음을 지닌 여자예요. 물론 '영우'가 자신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답답해하지 않고 지켜볼 줄 아는 그런 여자예요.

-영화의 매력이란?

일단 준비할 기간이 많으니까 드라마에 비해서는 바쁘지 않게 충분히 컨디션을 생각하며 촬영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스태프들과의 분위기에 있어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깊이 교

-연예인임을 가장 실감할 때

아무래도 대중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고 인정해줄 때 그런 느낌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연기자

존경하는 연기자들은 너무 많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보다 연기를 잘하시는 연기자 분들은 모두 존경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연기자를 꼽는다면 심은하씨를 들 수 있어요. 자신만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심은하씨는 단아하면서도, 무언가 정적이면서도 또 아름다운 그런 면이 정말 부러워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자 노력하는 편이고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는 영화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계속 시나리오들을 보면서 출연할 영화를 모색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고요. 좋은 영화를 골라서 영화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 뵙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영화 '간첩 리철진'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영화 '간첩 리철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남파간첩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은 영화에서 제가 사춘기를 힘들게 겪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왜 나는 한국인이면서 이쪽에도 또 저쪽에도 속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지요. 답이 없는 질문에 제 자신만 계속 힘들어지고요. 통일이나 안보 문제는 군인 여러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해주시니까 여러분들께 맡겨요!

분들을 기다려주신 여자친구 분들께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답하셨으면 해요. 군인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

일병 장승모

ÇÁ/ÆÄÄİ  
Äİ,Ş: 1'ÚÄØÈñ  
»ý²â¿ùÄİ: 1978³â 1¿ù  
8Äİ  
Ä°: 167cm  
ö'«°Ö: 48kg  
ÇÐ±³ : µ¿´ö¿©´ë  
1æ¼ÄÜ¿-¿'ÇÐ°ú  
Ä°/±



카투사 신문 장승모

